

제 4박사의 여정과 성패의 해석

-헨리 반 다이크,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의 각색 희곡을 중심으로*

윤진현**

〈차례〉

1. 머리말
2. 헨리 반 다이크 『제사박사(第四博士)』의 번역
3. 제 4의 길을 찾는 극적 상상력
 - 3.1. 한석원의 〈아르다반의 여행〉, 비성서 소재의 성서화
 - 3.2. 방인근의 〈다른 박사〉, 사회적 당위로서의 구제
 - 3.3. 강승한의 〈불멸의 미소〉, 민족해방의 책무와 투쟁의지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목사 헨리 반 다이크(Henry van Dyke, 1852-1933)의 작품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을 이를 번역한 밀의두(E.H.Miller)와 김동극(金東極) 공술의 『제사박사』와 함께 이를 희곡으로 각색·변안한 한석원의 〈아르다반의 여행〉(『청년』, 1922.12.), 방인근의 〈다른 박사〉(『기독교신보』, 1929.11.27.-12.4.)와 강승한의 〈불멸의 미소〉(『기독교신보』, 1934.11.21.-12.19.)를 살펴보았다.

한석원, 방인근, 강승한은 모두 본격적인 의미의 주류 극작가는 아니지만 1920년대 이래로 희곡과 연극을 서구 작품의 번역과 변안과정, 자연주의적인 표현 형식에서 고양되는 민족해방의 투쟁의지에 접속된 작가들이었다. 한석원의 〈아르다반의 여행〉은 픽션에 불과한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상상이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수용될 것인가에 주의하고 있으며 방인근의 〈다른 박사〉는 주인공 알타반의 선택과정이 좀더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다. 강승한은 불과 16세의 나이로 해당 작품을 각색하였으며 교회 및 당대 사회를 향해 원작에 대한 확신에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0583)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2 한국극예술연구 제80집

찬 해석을 기반으로 열정적인 웅변의 장으로 삼고 있다. 이는 독립과 해방이란 목표가 지연되는 중에도 당장의 가시적 실패 너머에서 성공을 설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강승한, 다른 박사, 방인근, 불멸의 미소, 아르다반의 여행, 알타반, 제사박사, 한석원, 헨리 반 다이크,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

1. 머리말

한국근대희곡의 발전에 각 지역의 청년회, 소년회 등의 단체와 교회 등에서 상연을 목표로 생산된 수많은 소인극의 역할은 지대했다.¹⁾ 그럼에도 특히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초반에 걸쳐 교회 공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상연된 일련의 작품이 초창기 한국 근대 연극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 물론 한국 근대연극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은 비단 1920년대 초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근대 풍물로서 ‘연극’은 거의 동시에 이 땅에 유입된 ‘기독교’와 함께 둘 다 서양 문화의 일부라는 점에서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연극사에서 아직 ‘기독교 연극’은 그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형편이다.³⁾ 이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인 언급으로 한정되거나 호교적인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기술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근대희곡사에서 기독교 관련 작품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은 <열세 집> 등 유명 레퍼토리와 그 작가인 고죽(孤竹) 김현순(金賢璵) 등에 대한 연구와⁴⁾ 리보라의 경험적 서술⁵⁾, 그 연장선에서 이를 인용한 김은주의 개괄적 서술을⁶⁾ 참조할 수 있을 뿐이다. 특정 종교의 영향 하에서 생산된 작품은 해당 종교의 교의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그 본의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

1)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512-518면 참조.

2) 박영정, 「1920년대 초 주일학교 공연 레퍼토리 분석」, 『한국문화와 예술』 제5권,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0, 64면.

3) 박영정, 「1970년대 기독교 연극 연구」, 『국제어문』 제21권, 국제어문학회, 2000, 165-167면 참조.

4) 박영정, 「가극 열세 집에 나타난 초기 가극의 한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28권, 한국극예술학회, 2008.10.; 박영정, 「가극 열세 집의 북한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제45권, 한국극예술학회, 2014.

5) 리보라, 『등등등』, 신학문사, 1990.

6) 김은주, 『기독교 연극 개론』, 성공문화사, 1991, 355-360면 참조.

교 문화를 배경으로 생산된 서양의 희곡을 보더라도 반드시 종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타 장르에 비해 다소 대상 범위가 협소한 한국근대희곡사에서 앞으로 관련 희곡을 정리하고 조명하여 범위를 확대해 가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종교적 색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다만 호교적 차원에 한정하거나 표면적 내용파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기반에 실재하는 인간과 사회적 현실의 실체를 재구하며 종교에 의지하며 고구했던 당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기독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당수의 불교 관련 희곡 등 여타 종교 희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 기독교 희곡의 실상을 검토하며 실제 작품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사적 위상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그간 연구대상으로 호출된 바 없는 『기독신보』(1915.12.-1937.07.)에 소재한 총 43편의 희곡 중⁷⁾ 헨리 반 다이크(Henry van Dyke, 1852-1933)의 작품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을 각색·번안한 방인근의 <다른 박사>(『기독신보』, 1929.11.27.-12.4.)와 강승환의 <불멸의 미소>(『기독신보』, 1934.11.21-12.19.)와 그리고 같은 소재인 한석원의 <아르다반의 여행>(『청년』, 1922.12.)까지 세 편의 희곡을 함께 살필 것이다.

헨리 반 다이크의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1896)는 연희전문학교수였던 밀의두(E.H.Miller)와 김동극(金東極)이 조선야소교서회에서 『제사 박사(第四博士)』라는 제목으로 1920년 10월 번역, 발간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20년 12월 『기독신보』에 3회에 걸쳐 그 줄거리가 소개되기도 하였고⁸⁾ 공연기록도 발견된다.

일제강점기 이 작품의 상연은 현재로서는 1923년 12월 26일 성진 육정 예배당에서 여자청년회에 의해 성극 <사박사>가 공연되었다는 기록과⁹⁾

7)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8) 「뒤떠러진 순례자」, 『기독신보』, 1920.2.22.-1921.1.5.

1935년 12월 24일 오후 8시 20분부터 40분간 황재경 연출로 연동성극단에 의해 JODK에서 방송된 라디오 드라마 <빛나는 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옥정예배당 여자청년회의 공연이 <사박사>라는 제목이었던 것으로 보아 한석원의 작품이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마도 밀의두, 김동극의 번역을 독자적으로 각색한 작품이었을 듯하다. 연동성극단의 방송극 또한 기존 작품과는 다른 제목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각색과정을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막 알타반 박사의 집, 2막 베들레헴 가로(街路), 3막 예루살렘 가로(街路)이고 1막의 여러 인명이 구체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굳이 비교한다면 강승환의 작품이 가장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작품의 연출자는 황재경(黃材鼎)으로 연회전문 4중창단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만담을 맡아 JODK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연동성극단의 ‘연동’은 연회동에서 비롯한 명칭인 듯하다. 이 작품의 상연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보통 JODK에서 방송되는 연극은 공연을 전후하여 방송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공연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들 작품 이외에도 기록에 남지 않은 상연도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 연극 1세대라 할 수 있는 리보라(李保羅)는 해방 전 기독교 연극을 제 1기로 구분하고 해마다 성탄절은 성경 역사극, 교회 생활극을 낳았으며 일제 강압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민족극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상연된 작품 소재로 성탄, 부활, 감사절, 꽃주일, 모세, 노아 홍수, 삼손, 출애굽기, 에스더, 알타반 박사, 천로역정, 한네레의 승천, 꽃팔이, 순교자, 단심주, 열세 집, 미신타파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니¹¹⁾ 여기에서 ‘알타반 박사가 바로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의 주인공이다. 이 작품의 각색 제목은 <아르다반의 여행>, <다른 박사>, <불멸의 미소>, <빛

9) 「청년기타집회」, 『동아일보』, 1923.12.31.

10) 라디오, 『조선일보』, 1953.12.23.

11) 리보라, 앞의 책, 109면.(원 출처는 ‘기독교 연극’, 『한국기독교공보』, 1962.12.10.) 출처는 생략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이 김은주의 저서에도 인용되어 있다. 김은주, 앞의 책, 355면.

나는 별>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 작품이 상연될 때는 밀의두, 김동극의 번역서 『제사박사』를 직접 각색하거나 이들 희곡을 참조하여 <알타반 박사>와 같은 새로운 제목을 붙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일련의 작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 다이크의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의 각색과 연극 상연이 상당히 빈번했다는 사실이다.

이 작품은 마태복음서 2장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고 돌아갔다는 일화에서 착안한 픽션이다. 이들 동방박사와 함께 오려고 했던 네 번째 박사가 있었으며 여러 사정으로 끝내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웃을 돕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준비했던 귀한 보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임종의 순간에 결국은 소원을 이루고 신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작가 헨리 반 다이크는 목사였고 마태복음서에 기원 화소가 있는 만큼 이 작품은 기독교 문학의 일원으로 소개되고 향유되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 출판, 유통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번역, 소개되었으며¹²⁾ 다양한 그림책,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도 만들어졌다.¹³⁾

이 작품의 저변을 이루는 기독교의 신학적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전적으로 기독교적 해석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평생에 걸친 한 인간의 집념과 자율

12)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역본은 다음과 같다.

헨리 반 다이크, 박미현 옮김, 『네 번째 동방박사』, 생명의말씀사, 2001.

_____, 차영지 옮김, 『The Other Wise Man 아르타반』, 내로라출판사, 2022.

연극 및 뮤지컬 대본으로 다음 각색본을 찾아볼 수 있다.

강정희,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교육교회』 제263권,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1998.

인영아 극본·이강산 작곡, 「제4의 동방박사」, 모퉁이돌, 2004.

13) 한국에 공식적으로 소개된 영화, 애니메이션은 없다. 다만 Youtube에서 영화 *The Other Wise Man*(1960), 마틴 씀(Martin Sheen) 주연의 TV영화 *The Fourth Wise Man*(1989), 애니메이션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1989) 등을 볼 수 있다.

적인 선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문제의식을 추적해 볼만한 여지는 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적 의미나 해석보다 이 작품의 무엇에 공감하면서 한석원, 방인근, 강승한 등 당대 작가가 관객(독자)에게 공연을 목표로 왜 이 작품을 제안하는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헨리 반 다이크 『제사박사(第四博士)』의 번역

밀의두(密義斗)·김동극(金東極) 공술(共述)의 『제사박사(第四博士)』(조선 야소교서회, 1920)는 헨리 반 다이크(Henry van Dyke, 1852-1933)의 작품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을 번역한 것이다. 『제사박사』라는 제목은 마태 복음서의 동방박사가 셋이었다는 통념¹⁴⁾에 의거, 주인공 알타반(Artaban)¹⁵⁾을 네 번째 박사라고 칭한 데서 붙여진 것이다.¹⁶⁾

작가 헨리 반 다이크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여 목사가 되었고 프린스턴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우드로 윌슨(T. Woodrow Wilson, 1856-1924)과 동문수학한 사이로, 윌슨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대사를 지냈으며 작가로서는 미국 문학에 술아카데미의 일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은 1895년 뉴욕에서 목회할 당시 처음 발

14) 마태복음서의 해당 구절에는 동방박사가 복수로 표기되어 있을 뿐, 셋이라고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셋이라고 해석되어 왔을 뿐이다.

15) 주인공 알타반(Artaban)의 이름은 앳타반(밀의두·김동극 공역), 아르다반(한석원), 알타반(방인근), 아타반(강승한) 등으로 각기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작품을 설명하거나 직접 인용할 때는 각 작품의 표기를 따르고 그 외에는 ‘알타반’으로 표기한다.

16) 헨리 반 다이크의 작품 외에도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박사 외에 또 다른 네 번째 경배자들이 있었다는 상상은 이후 다양한 작품으로 형상화된다.

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896년 뉴욕 하퍼 브라더스(HARPER & BROTHERS)에서 초판이¹⁷⁾, 1899년에 재판, 1907년에 3판, 1920년에 4판이 발간되었다.

밀의두(E.H.Miller)·김동극(金東極) 번역의 『第四博士』는 1899년 판을 저본으로 하는 완역본이다. 1899년 판은 초판 서문 앞에 재판 서문을 추가했으며, 여기에는 초판이 발행된 후, 각지에서 해적판이 등장하여 저자가 사라지고 해당 작품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확산되던 사정이 밝혀져 있다. 밀의두·김동극의 서문은 이를 충실히 소개하며 심지어 원문을 보완하는 정확성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출판권은 1895년과 1899년 하퍼 브라더스에 있다는 사실이 재판에 밝혀져 있는데, 이를 원작 서문에는 다만 ‘some years’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에서는 ‘오개성상(五個星霜)’이라 적시하여 번역의 저본이 처음 발표된 후 5년이 경과한 판본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재판 서문을 원서(原序)라 소개하고 초판 서문은 3음보 3행 6절의 아름다운 창가체로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은 원전을 충실하게 번역한 완역이면서 인물의 동작 설명에서는 “-다”의 현재형을 사용하고 묘사 및 서술에서는 “-러라”, “-더라” 등을 섞어 사용하는 고아한 전통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국한문혼용체이나 한자에 한글 음을 달아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였고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맥락을 잃지 않은 아름다운 번역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the Hall of Dreams’이란 표현을 들 수 있다. 원작 서문에서 이는 다음 문장과 같이 사용되었다.

I would tell the tale as I have heard fragments of it in the Hall of Dreams, in the palace of the Heart of Man.¹⁸⁾

17) 발행연도는 1896년이나 출판권 연도는 1895년이다. 당시에는 조판 등 출판과정이 최소 6개월 이상이었던 데서 비롯된 시간 차이인 듯하다.

18) Van Dyke, Henry,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 New York: HARPER &

마음 대궐 꿈 집에서 / 날날이 들은 대로 전함세¹⁹⁾

‘the palace of the Heart of Man’과 ‘the Hall of Dreams’을 결합하여 ‘마음 대궐 꿈 집’이란 시적인 표현으로 함축하였고 특히 ‘fragments’를 ‘날날이’로 표현한 것은 득의의 번역이라 할 만하다.²⁰⁾

‘the Hall of Dreams’은 이후 더욱 아름다운 중의성을 획득한다. 원저자 헨리 반 다이크는 이 작품을 건강이 좋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시기, 어느 날 밤에 떠오른 이야기이며 그렇다고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 같지도 않고 누군가의 ‘뇌물’이었다고 설명한다.²¹⁾ 즉 잠자리에 들어 꿈인지 생인지 알 수 없는 순간 신비한 영감으로 포착한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저자 또한 이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이야기꾼’이 된 듯, 신비한 환영을 보고 들은 듯이 기술한다. 즉 이야기가 생성되는 특별한 무대 공간을 바라보는 관객처럼 화자는 제 4박사의 여정을 ‘들은’ 것이다. 무대 공간을 ‘보면서’도 ‘showing’보다 ‘telling’, 즉 ‘telling’의 객체로서 청중(聽衆), ‘듣는(listening)’ 존재로 해석되어 온 동서양 공통의 전통적인 극적 미학을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감각적 전달방식은 극적 상상에 매우 효과적이다.

There was a silence in the Hall of Dreams, where I was listening to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²²⁾ (다른 박사의 이야기를 듣던 꿈의 방은 조용해졌다.

BROTHERS, 1899. p.xix.

- 19) 헨리 반 다이크, 밀의두·김동국 옮김, 『第四博士』, 조선야소교사회, 1920, 8면.
- 20) 해당 문장에 대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2종의 번역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인간의 마음속 궁전에 있는 꿈의 홀에서 그에 관해 들은 짧은 이야기들을 들은 그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헨리 반 다이크, 박미현 역, 앞의 책, 21면.
사람의 마음속 꿈의 전당에서 생생하게 피어난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주겠다.: 헨리 반 다이크, 앞의 책, 2022, 13면.
- 21) 헨리 반 다이크, 앞의 책, 1920, 2면.

- 번역 필자)

제 사막사의 담화를 듣고 있는 명명(冥冥)한 몽실(夢室)은 이제 다시 적
적하여지며 (…)²³⁾

축자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이 매우 아름다운 번역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the Hall of Dreams’를 ‘꿈 집’ 즉 ‘몽실’로 해석하고 ‘몽실은’이라 번역한 것은 특히 중의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화자 또는 필자에게 중요한 장소를 인칭으로 전환하는 동아시아 작명 방법이 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장 내에서 ‘꿈의 방’이라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막을 건너는 제 4박사의 모습을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화자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즉 독자의 동아시아적 감수성에 부합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를 더욱 쉽게 자기화할 수 있는 미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명명(冥冥)한’은 이어지는 문장 ‘이 침묵 너머로 아주 희미하지만 나는 보았다.(through this silence I saw, but very dimly)²⁴⁾’는 문장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원문에서는 몽실(the Hall of Dreams)의 밝기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막을 건너는 앗타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도록 자연스레 방안의 조도를 낮추었던 것이다. 즉 원문 내에서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조용한 가운데 마치 환몽처럼 떠오르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미를 도저히 잡아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번역한 에드워드 밀러(Edward H. Miller, 密義斗 1873-1966)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한국 선교사이다. 밀러는 1873년 7월 18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났다. 로스앤젤레스의 옥시덴탈대학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는, 한국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잠시 귀국한 빈

22) Van Dyke, Henry, Op.Cit., p.43.

23) 헨리 반 다이크, 앞의 책, 1920, 37면.

24) Van Dyke, Henry, Op.Cit., p.43.

튼(C.C.Vinton, 빈돈)의 강연을 듣고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1901년 내한한다. 밀러 선교사는 당시 게일(J.D.Gale, 기일)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던 경신학교 교사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듬해에는 여선교사 헨리(Mattie M. Henry)와 결혼하였으며 1905년에는 경신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1906년 교사를 신축하는 등 학교 발전에 힘썼다. 1918년부터는 연희전문학교로 옮겨 1942년까지 화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그 사이 YMCA와 기독교서회의 운영에도 참여한 바 있다.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인 1941년 12월 미국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6개월 간 옥고를 치른 그는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해방될 때까지 한국어 방송을 담당하면서 곧 해방될 것이니 견디고 참으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고 전해진다.²⁵⁾

미국인 밀러의 한국어 역량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 전아한 번역에 조선인 김동극이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하게도 김동극은 영문 이름을 'Kim Tong Kil'로 표기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김동극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²⁶⁾

이 작품은 총 다섯 편의 소설로 나뉘어 있다. 1편은 공중의 기사(The sign in the sky), 2편 바벨론 강가로(By the waters of Babylon), 3편은 어린아이를 위하여(For the sake of a little child), 4편은 슬픔의 숨은 길로(In the hidden way of sorrow), 5편은 고가의 보옥(A pearl of great price)이다.

1편 공중의 기사(The sign in the sky)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 나타나고 '앗타반'을 비롯한 동방박사들이 이에 주목하여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해석 하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과정을 다룬다. 주인공 '앗타반'은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로서 다른 사제들과 조로아스터교의 유력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여 새로이 나타난 별의 의미를 설명한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자손 중에서 새 별이 일어날 것이요, 이스라엘

25) 송현강, 「이주일의 역사 : 밀러 선교사」, 『기독신문』, 2010.07.11.

26) 간지에는 '경성부 익선동 43번지 조선인 김동극'이라 밝혀져 있다.

헨리 반 다이크, 앞의 책, 1920, 65면.

가운데 새 홀이 나타나리라.'라고 언급한 구절과 다니엘서 9장에서 '이러므로 내가 알고 분변할지니 명을 내리사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건축할 때로부터 기를 부음을 받은 왕까지 칠 주일과 육십이 주일이 되리라.'라고 한 구절을 인용하여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므로 함께 경배하러 가자고 권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제들은 앗타반의 신님이 헛되다고 비웃거나 바쁜 사무, 가족과 건강 등을 핑계로 모두 거절한다. 앗타반은 가산을 기울여 장만한 홍보석, 청보석, 백진주의 세 가지 보물을 예물로 지니고 홀로 출발한다.

2편 바벨론 강가로(By the waters of Babylon)는 친구인 동방박사 세 사람과 합류하기 위해 길을 재촉하는 중에 죽어가는 히브리 유민을 만나 그를 구호하느라 결국은 일행을 놓치고 마는 과정이다. 앗타반은 청보석을 다시 팔아 홀로 떠날 준비를 하기로 한다. 3편 어린아이를 위하여(For the sake of a little child)에서는 예수 탄생 3일 후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앗타반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예언을 막기 위해 헤롯은 어린아이 살해령을 내리고 이에 앞서 예수 일가는 이집트로 도피하여 화를 면한다. 앗타반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베들레헴에서 만난 유대부인과 그녀의 아기를 구하기 위해 아이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유대 장교를 홍보석으로 매수한다. 4편 슬픔의 숨은 길로(In the hidden way of sorrow)에서는 이집트의 여러 도시와 지역으로 예수의 종적을 추적하며 히브리 현자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가난한 이집트의 빈민가에서 사람들을 구호하며 사랑을 실천한다. 5편 고가의 보옥(A pearl of great price)은 33년이 지난 후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한 앗타반 여행의 결말이다.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는 순간, 앗타반은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 순간 빗쟁이에게 팔려갈 위기에 처한 페르시아 여인을 위해 마지막 남은 보옥을 사용한다. 그리고 예물을 모두 쓰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포기한 순간, 앗타반은 지진으로 떨어진 기왓장에 맞아 절명하고 만다. 그러나 그 순간 황혼 속

에서 가느다란 구원의 음성이 들린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물을 쓰고 도운 것이 곧 구주에게 한 것과 같다는 마태복음서 25장 41절의 내용이다. 앗타반은 결국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표면적으로 확실한 실패지만 이것이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앗타반은 평생 새로운 왕을 만나보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임종의 순간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두 번째는 이렇게 목표의 달성이 지연되는 중에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생명을 구했다는 점이다. 왕(구세주)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당대 종교 관행에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지만 앗타반은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 대신 숲속에 병들어 쓰러진 자를 보살피고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기의 목숨을 구하였으며 팔려가 종이 될 위기에 처한 여인을 도우며 스스로 옳은 것을 실천하였다.

이렇듯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여 명백히 실패이나 진짜 실패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 유예되는 진실은 3·1운동 직후의 한국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말에 시작된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은 ‘105인 사건’ 등 일체 통치 초기의 무단압제를 거치면서도 시들지 않고 3·1운동의 중심 추진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3·1운동의 결과, 좌절한 기독교인 중에는 현실과 타협하거나 타계 지향의 신앙에 경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²⁷⁾ 즉 1920년 현재 필요했던 것은 좌절이지만 좌절이 아니며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목표 앞에서 어떻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의와 선을 실천할 수 있는가였다. 밀러와 김동국의 『제사박사』의 번역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 제안된 메시지의 하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www.kci.go.kr

27)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1990, 73면.

3. 제 4의 길을 찾는 극적 상상력

3.1. 한석원의 <아르다반의 여행>, 비성서 소재의 성서화

이 작품을 가장 먼저 각색하여 소개한 것은 한석원(韓錫源, 1894-1987)으로 제목은 <아르다반의 여행>([『청년』, 1922.12.)이다. 큰샘 한석원 목사는 1894년 평안북도 선천군 천북동에서 출생하여 진남포 삼승학교(1909)와 서울 상동청년학원(1912)을 거쳐 일본 칸사이대학(関西大学) 신학부(1917)를 졸업하였다. 정동교회, 만리현교회 등에서 전도사 등 여러 직책으로 일하면서 1919년에는 조선예수교회 번역부 주임, 1922년에는 YMCA 번역부 간사로 일했다. 기독교 계열의 여러 저널의 편집인으로서 어린이 잡지 『새동무』, 『아이생활』, YMCA 기관지 『청년』 등을 편집하였고 1923년에는 『음보부 각본 소년소녀가극집』 1집, 1924년에는 2집을 편집, 발간하였다.²⁸⁾ 1928년 미국으로 건너가 리들리 한인교회 등을 거점으로 아동가극대를 조직하여 미국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열세 집> 등의 가극을 상연하였으며²⁹⁾ 기독교적 민족의식의 고취에 앞장서기도 했다.³⁰⁾

<아르다반의 여행> 외에 한석원의 다른 희곡작품으로는 <형제>([『청년』, 1922.8), <애급의 재상>([『청년』, 1922.10.), <미끄러운 돌 다섯 개>([『기독신보』, 1922.11.15-12.20.), <그 동생>([『청년』, 1923.05-06.), <악한 시민>([『청년』, 1923.09.), <에스더 왕후>([『아이생활』, 1926.06.)³¹⁾, 『음보부 각본 소년소녀가극집』 2집에 실린 <우리 꽃 피어서>(1924) 등이 있다. 가장 큰 비중을

28)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박영정, 앞의 논문, 2010.

29) 박영정, 앞의 논문, 2008 참조.

30) 한석원의 이력 사항은 다음 문헌을 참고함.

안형주, 『천안만세운동과 미주민족운동(하)』, 성서와교회연구원, 2019, 548면.

안수강, 「한석원 목사의 '책임의 자각'(1922) 분석 및 현재적 함의」,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6집, 한국교회사학회, 2020, 197면.

31) 이 작품은 『아이생활』 해당 권호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 광고를 통해 제목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기독신보』, 1926.6.16.)

차지하는 것은 성서 소재로 <애굽의 재상>은 요셉의 이야기를, <미끄러운 돌 다섯 개>는 다윗의 활약을, <그 동생>은 돌아온 탕아를 소재로 한 작품이며 <악한 시민>은 마태복음서 18장에 실린 자신은 빛을 탕감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준 빛은 탕감해주지 않은 탐욕스러운 자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기독교적 색채가 확실하지만 1920년대 초, 한석원이 추구했던 바람직한 인간상과 연동하여 탐색해 볼 만하므로 이후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아르다반의 여행>은 전 3막의 장편으로, 한석원이 YMCA 간사로 재직하면서 『청년』 편집에 관여할 때 발표되었다. 한석원 자신이 조선예수교회 번역부, YMCA 번역부 등에서 일했고 후일 미국 리틀리 한인교회 등에서 목회를 할 만큼 외국어에 능통했으므로 아마도 독자적으로 원전을 참고한 듯하다. 작품 첫머리에 ‘아르다반의 여행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전 후(其前後)를 나타낸 것이니 헨리 반 다익의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이란 것을 재료로 삼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밀러와 김동국의 『제사박사』를 몰랐다가보다는 『제사박사』를 의식하면서 이에 대해 독자적인 해석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1920년대 초반, 번역을 통해 새로운 연극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서양의 근대극 또는 서양의 근대 텍스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를 거부하며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맞는 근대극을 고민하던 당대 근대극 수용의 경과와 궤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다. 1910년대 일본에 유학한 한석원은 이른바 번역의 시대를 맞이하며 서양의 우수한 희곡이 번역, 소개되던 일본의 다양한 번역극과 식민지조선의 계몽운동의 흐름에 연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³²⁾

더욱이 한석원은 밀의두김동국의 번역은 물론이요, 헨리 반 다이크의 원작까지 능동적으로 변용하면서 번안에 이르고 있다. 한석원은 등장인

32) 김재석, 『식민지조선 근대극의 형성』, 연극과인간, 2017, 20-35면 참조.

물의 이름을 독자적으로 음차하여 밀러, 김동국의 역본과는 달리 ‘아르다 반’이라고 표기하였다. 그 외에도 각종 지명과 인명에서 주로 예사소리를 활용하여 비교적 한국인이 발음하기 쉬운 표기를 채택하고 있다. 내용의 변용도 상당하다. 1편 공중의 기사(The sign in the sky) 부분은 아예 생략하였고 2편 바벨론 강가로(By the waters of Babylon)에서 병들어 쓰러진 히브리인을 구조하는 과정 또한 간단히 보고로 처리하였으며 4편 슬픔의 숨은 길로(In the hidden way of sorrow)에서 보여주는 아르다반의 여행과 깨달음의 과정도 모두 생략하였다.

즉 한석원의 각색은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1막에서는 동방박사 3명이 아르다반을 기다리다 먼저 떠나고 뒤미처 아르다반이 도착하여 동행을 놓치고도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결정하여 여행을 시작한다. 2막에서는 헤롯의 명령에 따라 두 살 아래 아기를 모두 살해하려는 유대장교를 매수하여 아기의 목숨을 구하며 3막에서는 예수가 처형되는 날, 빛을 지고 로마병정에게 쫓기는 처녀를 만나 그녀를 구해준 후 기진하여 쓰러져 사망한다.

여기에서 우선 두드러지는 특징은 소설에서는 등장하지도 않았던 동방으로 떠난 3명의 박사, 카스파(Caspar), 멜키오(Melchior), 발사잘(Balthazar)이³³⁾ 직접 등장한다는 점이다.³⁴⁾

카스파	그러면…… 었든 곳에든지 손댈 곳이 업단 말이나?
첫재종	그러합니다. 제가 도라보고 온 ‘님로트’ 언덕에는 여러 고을 사람이 만히 와서 잇기는 하지마는 누구의게 무리보든 지 ‘역마다나’의 아르다반 박사가 불시로 갓다는 소문은

33) 밀러와 김동국의 번역본에서는 키쓰파, 밀초어, 빨다사로 표기하고 있다.

헨리 반 다이크, 앞의 책, 1920, 15면.

34) 소설에서 이 장면은 무너진 기와파편 더미에 양피지 편지가 있고 “우리들이 밤중이 지나도록 기다렸으나 더 지체할 수 없으므로 왕을 찾으러 길을 떠났으니 사막을 건너서 우리를 따라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간단히 처리하였다.

더욱히 못드렸습니다.

(…중략…)

멜키오 카스와 씨. 아르다반 박사는 엇더케 되었습닛가…….

카스와 (돌나보며) 오. 참 큰일이 났구려……. 아르다반 박사에게는.

(…중략…)

발사잘 (둘재중의게) 그래서 탐지를 못하였다는 말이나?

둘재중 발사잘 씨! 힘껏 다하여 도사를 하여 보았습시다마는 참 고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오지를 못함으로 미안하올시다. (아모 말도 업시 섰다. 별은 빛을 더 발하며 빗췌인다)

발사잘 아아 더것 보게! 더 별은 …… 꼭 해와 갓흐다. 낮이라도 더할 수 업시 바라……보면 볼스록 우리의 마음이 췌는다.

멜키오 지금은 뻗 시나 되었소?

발사잘 모래시계의 모래가 하나도 남지 안코 다 췌러진 것은 다 행한 일ियो. 약속한 시간은 다 지나갓습니다. 더구나 아르다반 박사의 자태는 보이지 안네…… 응… 엇지할가? 우리는 이외에 더 기다려도 쓸데가 업겟소. 생각지 안코 췌나는 것이 엇더할는지.

멜키오 그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잇는 데까지 약속을 직혔는고로 지금은 엇지할 수가 업습니다…… 췌나시지요?

카스와 그러면 섭섭하지마는 췌나십시다.

발사잘 우리가 이곳에서 이러케 기다릴 췌에 구췌를 경배하지 못하게 되면 큰일ियो. 그러나 이제는 한 초라도 속히 췌나 갑시다.

(한석원, <아르다반의 여행>, 『청년』, 1922.12. 31-32면)

원작 소설에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논쟁하던 장면을 생각하면 이 장면의 삽입은 창의적인 개작에 준한다. 전체 10면의 작품에서 1막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도입부 3면 이상을 간절하게 아르다반

을 기다리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한석원 자신이 성서의 동방박사 일화를 보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어로 흔히 ‘동방박사’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서가 씌어질 당시,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 즉 페르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마고이(magoi)’이다. 그리스어 단수는 ‘마고스(magos)’이며 ‘마고이(magoi)’는 복수형이다. 보통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로 이해된다. 그러나 같은 단어가 다니엘서에서는 ‘박수(개역)’, ‘점성가(공동번역)’, 사도행전에서는 ‘마술사’로도 번역된다. ‘동방박사’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데 비해 박수, 점성가, 마술사 등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과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 최고 수준의 지식을 지닌 과학자였다.³⁵⁾ 당시에는 천문학과 점성술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미디어에서 시작된 점성가들로 페르시아지역에서 명맥을 이어간 학자들이었으며 신의 뜻을 해석하여 국정을 보좌하던 고위관리이기도 했다. 이들의 국가가 알렉산더의 정벌로 멸망하고 난 후, 즉 예수가 탄생한 기원을 전후해서는 헬라 제국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그리스-로마의 지배 하에서 점성학을 연구하며 어떻게 고대의 영광을 되찾아 국가를 세울 것인가를 탐색하는 이들이기도 했다. 복음서가 쓰이던 1세기 무렵에는 유대와 같은 로마 피압박민족으로서 유대-페르시아 연계는 정치적인 함축성을 띠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동안 로마의 적인 페르시아에 동정적이었고 심지어 그들과 내통한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³⁶⁾

35) 현우식, 「동방박사 이야기(마 2:1-12)의 교육적 컨텐츠」, 『기독교교육정보』 제31집,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12, 92-93면 참조.

이외에도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기록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려는 노력은 기독교 내에서도 뜨겁다. 다만 본 연구는 그 과학성이나 언어적 기원을 따지는 데 목표가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다음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신인철, 「동방박사의 예수 경배 서사에 내포된 이방인 수용의 신학적 의도」, 『신약논단』 제18권 1호, 한국신약학회, 2011; 강대훈, 「마태의 탄생기사에 나타난 유대 묵시 언어의 기능」, 『신약논단』 제22권 1호, 한국신약학회, 2015.

게다가 ‘동방’이라는 역어는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동질감을 부여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중국을 중심에 두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관에서 ‘동’은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진(秦)나라 때 씌어졌다는 『산해경(山海經)』에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하였으니 ‘동방’은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4세기에 씌어진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에 한반도를 ‘동(東)’으로 지칭하였으니 이후로 중화적 세계관 내에서 한반도는 대동, 해동, 청구 등 동쪽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명칭을 사용해 왔다. ‘동방박사의 동방이 한반도가 아니라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을 안다고 해도 ‘새로운 왕, 구세주가 태어날 것은 유대민족보다 먼저 알고 경배키 위해 동쪽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찾아갔다는 설정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서 쉽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원작에서는 서사적 흐름에 따라 의도적으로 세 명의 동방박사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네 번째 박사에게 집중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데 성공한 세 명의 동방박사와 그렇지 못한 알타반이 불필요하게 대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반면 한석원의 <아르다반의 여행>에서는 동방박사 3인의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빛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여 마태복음서의 예수탄생기사를 지지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예수의 출생을 증거하는 이들로 동방의 박사들을 호출하였던 마태복음서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창세기 49장과 다니엘서 9장을 근거로 예수 탄생의 필연성을 드러내던 원작과 달리 예수의 행적을 중심으로 둔 신약 마태복음서의 내용으로 이를 대체함으로써 기독교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였다. 동시에 먼저 길을 떠난 동방박사 3명의 기다림과 먼저 떠나는 부득이한 결정을 보여줌으로써 극적으로는 관객의 안타까움과 좌절을 한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따라서 한석원의 각색은 확실히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 있는

36) 버나드 루이스, 이희수 옮김, 『중동의 역사』, 까치, 1998, 30-33면 참조.

기독교인으로서 성서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소재가 성서적 세계 내에서 안전하게 이해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의 전통적 감수성에 부합하여 당대 기독교인의 자긍심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3.2. 방인근의 <다른 박사>, 사회적 당위로서의 구제

『조선문단』의 창간 발행인이며 소설가인 춘해 방인근(春海 方仁根, 1899-1975)은 다작의 작가답게 현재 8편의 희곡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의 희곡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그의 작품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작품 헨리 반 다이크의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를 번안한 <다른 박사>(『기독신보』, 1929.11.27.-12.4.) 외에 ‘춘극 3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사회상>(『조선문단』, 1927.1.),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일부를 각색한 <아 무정 코셋트편>(『청년』, 1928.4.)과 강제결혼을 앞둔 한 처녀의 용감한 출가를 소재로 하는 <뚫아나는 싹>(『문예공론』, 1929.5.) 등이 있으며 당대 세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양극단으로 나뉘는 조선인들의 행보를 조명한 <천국과 지옥>(『기독신보』, 1930.11.19.-12.10.), 모세를 다룬 <메시아의 그림자>(『기독신보』, 1931.12.2.-12.16.), 타산적인 결혼 앞에서 진실된 믿음과 헌신을 다룬 <금십자가>(『신생』, 1932.11.), 부부간의 관계역전을 다룬 희극 <처시하>(『호남평론』, 1935.4.) 등이 있다.³⁷⁾

방인근의 <다른 박사>는 1편 ‘공중의 기사를 1막으로, 2편 ‘바벨론 강가로를 2막으로, 3편 ‘어린아이를 위하여’를 3막으로, 4편을 생략하고 5편 ‘고가의 보옥’을 4막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제사박사>의 흐름을 따른다. 다만 1편의 장황한 교의적 논쟁과 조로아스터 사제들의 이름과 역할을 대폭 축소한 점, 2편에서 히브리인을 구조하고 떠나려는 순간, 먼저 출발한 동방박사들의 사자가 등장하여 공간적 배경을 극적으로 축

37) 방인근의 희곡과 연극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른 지면을 약속하는 바이다.

소한 기교 등이 눈에 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표현에 걸맞은 대사를 적절하게 구성한 점은 방인근 각색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본래 원작 소설에서 4막에 등장하는 여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군사들에게 끌려 종이 되기 위하여 팔려가는 길이었고 알타반과 같은 페르시아 출신으로 알타반의 복색을 보고 구원을 요청한 것이었다. 알타반의 임종의 순간, 황혼 속에서 음악소리 같은 가느다란 음성을 듣지만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알타반이 이 목소리를 알아듣고 성서의 구절로 답변할 때, 이것이 페르시아 말이었으므로 여인은 비로소 그 말을 알아듣고 알타반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된다. 말하자면 이 여인이 굳이 페르시아 출신이었던 것은 일종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독자/관객은 알타반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니 임종의 순간을 외국어로 맞이한다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페르시아 출신의 인물이 필요했다고 하겠다. 또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노예로 팔린다고 할 때, 당시 관행에서 이는 사사롭게 개인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무지스러운 마케도니아 군사가 여인의 옷자락과 머리채를 끌며 등장하게 한 것은 원작자가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터이다.

그러나 방인근은 이 장면에서 그 같은 원작의 설정을 식민지 조선에 견주어 현실적으로 수정한다. 이러한 사실성은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자연주의 연극의 흐름과 연결된다. 이는 1918년에서 1920년까지, 1922년에서 1923년까지 동경에 유학했던 방인근이 유학시기 즐겨 연극을 관람하면서 수용한 일본 자연주의극의 형식적 특징과 식민지조선의 엄혹한 빈곤의 환경이 만난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³⁸⁾

찢어진 옷 입은 여자가 빗쟁이에게 쫓기어 등장

38) 김재석, 앞의 책, 68-76면 참조.

- 빛쟁이 요 앙큼한 년 같으니! 안 잡힐 줄 알고! 그래 내가 도망하면 몇 천리를 갈 듯 싶으냐? 흥! 인젠 독 안에 든 쥐야. 어디 또 도망 좀 해봐라. 어디! 어디!
- 여자 듣기 싫어요. 왜 그렇게 능글능글하게 굴어요?
- 빛쟁이 그래도 앙탈이야. 빛진 죄인이라니, 빛값에 종으로 팔려가는 년이 무슨 큰 소리야. 응!
- 여자 난 종 아니야. 왜 내가 종이야? 별 아니꼬운 일이 다 많아……. 죽어도 나는 당신 집 종으로는 안 갈 걸.
- 빛쟁이 뭐야! 요년이 싸라기밥을 먹었냐? 양반의 새끼냐? 뉘게다 반말이여. 응! 패썹한 년!
- 여자 당신은 뉘게 이년저년이야. 그건 잘하는 것인가?
- 빛쟁이 흥! 네가 그렇게 쯤 척하려거든 돈을 내라. 종이 되기 싫거든 빛진 돈 5천 냥을 내놓으렴. 당장이라도 놔줄 테니. 자, 내놓아……. 어디 어디 왜 못 내놓니……? 웬걸, 네게 귀 떨어진 동전 한 푼인들 있겠냐? 어서 가자.
- 여자 (알타반 앞에 엎드리며) 저, 저, 사람 살리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네! 자비를 베푸세요.
- 빛쟁이 그 거지 늙은이에게 암만 붙어봐라.
- 알타반 왜 그러시오? 딸이여!
- 여자 아버지의 빚으로 인하여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죽기보다 무서운 종으로 팔려가기는 싫습니다. 저를 그 악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네!
- 알타반 아, 다만 한 개 남은 이 보석은 지금 왕에게 바치는 것인데……. 어찌하면 좋을까……?³⁹⁾

(방인근, <다른 박사>, 『기독신보』, 1930.12.10.)

39) 『기독신보』에 수록된 작품의 표기는 원문의 의미와 분위기를 살리되 현대어로 수정하였다.

마케도니아 군사 대신 빗쟁이가 직접 등장했다. 옷자락과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빗쟁이 손에서 도망쳐 알타반 앞으로 달려 나온다는 설정이다. 페르시아 출신의 여인으로 동족 간의, 또한 같은 종교적 차원에서 자비를 구한다는 설정도 모두 삭제되었다. 대신 적나라한 빗쟁이의 천박한 언어와 “왜 그렇게 능글능글하게 굴어요?”와 같은 대사를 통해 이 여인이 팔려가는 곳은 매춘지역임을 유추할 수 있다. 게다가 만만찮게 반말을 구사하는 여인과 이에 “요년이 짜라기밥을 먹었냐? 양반의 새긴가? 뉘게다 반말이여.”와 같이 말투를 문제 삼는 분쟁의 어법은 한국인에게는 대단히 친숙한 다툼의 전개이다. 함부로 대하는 홀대가 싫으면 ‘당장 빗을 값으라.’고 재촉하면서 ‘동전 한 푼 없을 짓’이라고 조롱하는 표현도 매우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는 사실 교회적이지는 않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성극으로 제안하는 작품의 기본적인 공간적 배경은 교회당이다. 강대가 있는 교회의 전면을 무대로 꾸미고 일반인 다수가 참석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1차적인 관객은 교인이며 이들에게 무대는 교회와 극장이 결합된 중첩적 공간이다. 즉 사악한 악인이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 비속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언어를 기준으로 대사가 구성된다. 그러나 방인근은 기성 작가로서, 교회의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적나라한 시정의 언어를 구사하며 동시에 디테일한 개연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알타반이 마지막 보석으로 빗에 팔려갈 위기에 처한 소녀를 구할 때, 원작에서 예수는 처형되기 전이었다. 알타반은 십자가에 매달릴 예정이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가 33년 전, 자신이 만나고자 했던 그 아기가 아닐까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유대의 왕이라고 칭하는 말을 듣고 골고다로 향할 참이었다. 그때 한 소녀가 동족이며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인 알타반을 알아보고 구원을 요청하니, 이때 그는 왕에게 바칠 마지막 보물을 써야 하는 상황이 신의 시험이고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는다. 그럼에도 끝내 인명을 외면하지 못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알타반의 결정이었다. 종교적 의무와 소망보다 인간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이 원작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방인근의 각색에서는 알타반이 “어찌하면 좋을까.....?”하고 고민하는 순간 지진이 나고 군중과 병정이 달려오며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이 보고된다. 햇빛이 사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자연의 징조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들려온다. 그래서 알타반은 “왕께서는 돌아가셨구나! 나는 이 불쌍한 딸을 구원하여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보석을 여인에게 건네준다. 보석을 받은 빗쟁이는 천연덕스럽게도 “이답에 우리 집에 놀러” 오라는 말을 남기고 퇴장한다. 여인의 퇴장은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인이 계속 무대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 여인을 위한 대사나 행동은 전혀 없고 알타반은 가느다란 신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을 받고 ‘쓰러져 죽는다고 표현된다.

말하자면 방인근의 작품에서 알타반은 예물을 바칠 대상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대안으로 여인을 구하는 것이다. 즉 신에 대한 의무와 소망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충돌하는 순간을 비껴가며 논쟁의 여지가 없이 현실화된 여인의 구제라는 알타반의 선택을 사회적 당위로 만들어낸다.

3.3. 강승한의 <불멸의 미소>, 민족해방의 책무와 투쟁의지

강승한(康承翰, 1918-1950)은 황해도 신천 출신으로 서울에서 상업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려서부터 『아이생활』을 탐독하고 동요, 동시를 즐겨 지었다. 1933년 『아이생활』에 「내 동생」, 「시냇물」이, 1934년에는 『어린이』에 「바지」가 입선하였으며 이어 1934년 『신가정』에 「엄마 잃은 병아리」가 입선되었다. 이후 여러 매체에 작품을 발표하며 동시, 동요, 시, 동화, 소년소설 등으로 작품영역을 넓혀간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 동아일보 신천지국 기자로 재직하였고 1939년에는 소학교 교원 시험에 합격하여 황해도 공립용천심상소학교, 웅진소학교 등에 재직

하였다. 해방 후 재북작가로서 북조선문예총 황해도 지부장으로 활약하였고 회곡 <천지개벽>, <기쁨>, <토지개혁만세>, <덕보의 운명> 등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 「강령은 우리를 승리에서 인도한다」, 「진군」, 동시 「우리나라 정부가 섰다」, 동요 「현물세가 들어온다, 애국미가 들어온다」, 서사시 「한나산」 등을 남겼다. 그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이 유엔군이 밀려 퇴각하던 1950년 10월-12월에 이루어진 미군의 황해도 신천 양민 학살 사건 때 희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1956년 작품집 『한나산』이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⁴⁰⁾

해방 전의 회곡으로는 <불멸의 미소>와 아동극 <동정의 크리스마쓰>(『아이생활』, 1934.12.), <조그만 풍경>(『아이생활』, 1938.12.) 등이 있다. 재북, 월북 작가 등을 다룰 때, 오해되기 쉬운 것이 마치 그들이 해방 전부터 당연히 사회주의적 경향을 지녔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강승한이 비록 33년의 짧은 생을 살았다고 하나 16세부터 작품활동을 했던 열정적인 소년의 세계관이 분단 후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된 후 경사된 이념과 같을 수는 없다. 이 차이를 주의해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일제강점기 기독교라는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오늘날과 같이 사회주의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강승한을 통해서 기독교 내에서 성장하던 민족 의식과 투쟁의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해방 후 자연스럽게 재북

40) 강승한의 이력은 다음 논문을 참고함.

장정희, 「재북 아동문학가 강승한의 생애와 동시 세계」,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3호,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3.12.

이 논문에는 127편의 강승한 작품목록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작품인 각 색회곡 <불멸의 미소>를 비롯하여 기독교신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작품목록이 누락되어 있다. 조선일보에 수록된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압록강>(JODK 현상 신민요 2등 당선작, 흥난파 곡, 『조선일보』, 1934.9.22/1936.6.14.), 회곡 <불멸의 미소>(4회, 『기독교신보』, 1934.11.21-12.19.), 동화 「거미」(2회, 『조선일보』, 1936.08.13-14.), 「뽕꼭이 형제」(『조선일보』, 1936.08.15.), 「박연폭포」(『조선일보』, 1936.08.16.), 「칠월칠석날-견우직녀가 맞나는 날」(2회, 『조선일보』, 1936.08.18-19.), 「별이 된 어머니와 아들」(2회, 『조선일보』, 1936.09.01-02.), 「답알 도적」(『조선일보』, 1936.11.09.)

작가 강승한의 행보와 이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잡지 『아이생활』이 애초 기독교계에서 주도한 잡지였고⁴¹⁾ 강승한이 ‘아이생활’ 애독자였다는 점을 통해 그의 청소년 시기의 사고 기반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34년 4월 19일자 『조선일보』에는 ‘보회 발행하는 법’이란 질문이 올라왔다.

問) 예수교 안에 있는 기독교소년면려회에서 월간으로 회보를 발간할려는데 어떠케 허가 수속을 하여야 조음니까? 총독부 어디로 물을까요? (신천 강승한)

答) 회보를 발행하라고 하면 첫째 원고를 수집하여 그것을 총독부 도서관에 보내어 검열을 마티서 발행허가를 어든 뒤에 발행하십시오. (변호사 신태악)

당시 16세였던 신천의 강승한은 기독교소년면려회에 속해 있으며 월간으로 회보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강승한은 기독교 소년단체에서 성장하여 기독교계 잡지와 신문을 주요한 발표영역으로 삼고 있던 듯하다.

또한 강승한은 희곡창작에도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희곡으로는 첫 작품이요, 같은 시기에 <동정의 크리스마스>라는 작품 제목이 전하고 있지만 <불멸의 미소> 부기(附記)를 보면 강승한의 희곡 집필이 처음은 아니다.

남은 잉크로 여러분 독자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종전과 좀 색다른 각본을 여러분 앞에 내놓으려 하였으나 필자의 사정으로 단 시일에 글 쓸 틈이 변변치 않아 작품이 신실치 못함을 나 스스로 느끼는 바이며, 참고서적도 갑자기 손에 들지

41) 류덕재, 「한국 근대 아동문학과 『아이생활』」, 『근대서지』 통권 제24권, 근대서지학회, 2021.12. 참조

않아 밀의두·김동국 씨 공술의 저, 『제 사(四)박사』를 완전히 참고하여 썼습니다. 또한 연출할 이들에게 말씀드리기는 것은 <불멸의 미소>가 제 4경 이지마는 시간문제나 기타로 보아서 제 1경을 그만두는 대신 잠깐 관중에 제 1경을 무대 차리는 사이에 말하여 주고 2경부터 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물론 전 4경을 다 하면 더 좋을 것이지요. 그리고 상연하려면서 잘 깨닫지 못할 곳이 있으면 주저치 마시고 물어주십시오.

하여튼 크리스마스 명절을 기꺼이 지나십시오. _필자로부터.⁴²⁾

‘중전과 좀 색다른 각본’을 내놓으려 했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일반적인 형식의 작품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연에 필요한 조연과 상연할 경우,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치 말고 질문하라는 첨언도 당당하다. 이 작품이 다만 집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연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한 이유이다. 더욱이 희곡을 집필함에 있어 ‘참고서적도 손에 들지 않았다는 표현은 이전에는 다양한 참고서적을 기반으로 희곡을 썼다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밀의두·김동국 공술(供述)의 『제사(四)박사』를 분명히 적시하는 태도 또한 각 교회의 성탄행사에 다양한 다른 작품들을 참고하여 대본을 생산하는 관행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강승한은 이 작품에서 무대, 의상과 가발 등의 소품, 조명 지시, 배경음악과 사용할 찬송가 곡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실제 공연을 염두에 둔 대본으로 각색하고 있다. 1경은 1편 ‘궁중의 기사’, 2경은 2편 ‘바벨론 강가로’, 3경은 ‘어린이를 위하여’이며 4편 ‘슬픔의 숨은 길로’를 생략하고 4경은 5편 ‘고가의 보옥’으로 구성한 것은 방인근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강승한의 각색은 『제사박사』를 이해하는 작가의 의견을 숨기지 않는다.

아타반 가여운 인간이여! 시간이 없어서 그대를 버려두고 가려는

42) 『기독신보』, 1934.12.19.

나의 마음도 쓰릴 대로 쓰리오. 머지않아 세 친구는 내가 순례의 길을 그만둔 줄로 알고 떠날 터인데 …… (사이) … (망설인다) 아,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으면 몸쓸 열병에서 놓임을 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로구나! 내가 찾아가는 새 임금님도 괴로운 인간의 무리를 위하여 탄생할 것이니, 내가 사람을 하나라도 구하는 것은 그에게 기쁨을 돌리는 것이로구나. 그렇다! 자, 구해보자! (아타반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올린다) 참되신 진리시여! 순전하신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를 항상 인도하사 오로지 당신만이 아시는 거룩하신 길과 슬기 있는 발자취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강승한, <불멸의 미소>, 『기독신보』, 1934.11.28.)

아타반은 자신이 찾아가는 새 임금님도 괴로운 인간의 무리를 위하여 탄생할 것이므로 자신이 사람을 하나라도 구하는 것이 신에게 기쁨을 돌리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나아가 원작에서는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니었던 아타반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오류마저 당당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의 독자/관객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있기에 가능한 오류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떠나간 동방박사를 만나기 위한 노력이나 소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 없이 3경에서는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 어린아이를 돕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헤롯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장교가 아기의 집으로 들어오려 하자 아타반은 무력사용을 불사한다. 유대의 분봉왕 헤롯의 명령을 받았으나 다른 작품처럼 ‘유대 장교’가 아니라 점령군 ‘로마 장교’이다.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다. 더구나 원작은 물론이요 다른 작품이 소극적으로 문을 가로막고 서서 간곡하고 공손하게 장교를 설득하는 것과는 판판이다.

로마 장교 (눈을 부릅뜨고) 너도 찌부러진 이스라엘의 한 놈이지. 그럼에야 내가 헤롯 대왕의 명령을 당당히 받은 우리의 일을 방해할 권세가 있느냐?

아타반 (팔을 걷고) 자, 로마의 병정들 보아라. 이 팔뚝을 보아라! 이 주먹을 보아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죄악의 무리들은 의로 때려누이려고, 인간 사회에 존재하던 평화와 자유를 깨뜨리고 속박하는 자들은 부수라고 우리 조상의 하느님 이시오, 우리의 하느님 되시는 이는 무쇠 같은 주먹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강승한, <불멸의 미소>, 『기독신보』, 1934.12.5.)

아타반이 물러나 보석으로 로마 장교를 매수하는 것도 로마 장교의 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순례길에 싸우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원작의 알타반은 심각한 교리적 모순에 직면한다. 장교에게 ‘여기는 아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자 헨리 반 다이크조차 서문에서 ‘그것은 자신이 한 거짓말이 아니라 알타반이 한 것이며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하게 된 거짓말일 것’이라고 부연한다. 이 또한 물론 잘못이기는 하지만 큰 죄보다는 용서 받기 쉬운 것이라고 슬쩍 피해 간다. 한석원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예물로 쓸 보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용서를 빌고 있으며 방인근은 거짓말과 보석 사용 두 가지를 간단히 잘못으로 고백하며 왕(아기예수)의 낯을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한다.

그러나 강승한의 <불멸의 미소>에는 의심이나 반성의 기색이 없다.

아타반 참되신 진리의 하느님이시여!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은 사랑스러운 어린 아기를 구하려고 로마 병정들을 속였습니다. 그러하옵고 당신이 보내신 임금님에게 드리려던 예물을 벌써 두 개나 찌버리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고 가련한 어린 생명을
위하여 썼사오니 (하락)

(강승한, <불멸의 미소>, 『기독교신보』, 1934.12.5.)

용서하여 달라는 상투적인 기도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랑스러운 어린 아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용서하여 주실 줄 믿고 한 행동이다. 그뿐인가? 아타반은 신에게 바치기로 되어 있던 예물을 인간을 위해 써버리고도 무한한 즐거움에 도달한다.

아타반 무한히 끝없이 즐겁소. 새 임금에게 드릴 예물을 써버렸으나 로마의 무도한 능욕에 철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갈 아기네를 하나라도 구한 것은 순전히 하느님의 뜻이지요. (아기를 두드리며) 아기야, 아기야, 어서 자라나거라. 너희 동무들이었던 아기들은 이 베들레헴 거리, 거리에서 로마 병정의 악독한 칼날을 받고 비명을 지르고 넘어지누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붉은 피비린내는 떠오르는구나. 아기야, 너의 민족을 밟고 학살하는 로마 병정은 네가 무찔러야 한다. 너는 그놈들에게서 받은 모든 쓰라림을 갚아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놀림을 받는 자의 하나님이다. 슬피 애통하는 가여운 자의 하나님이다. 아기야, 이 거리마다 베들레헴 이 거리부터 온 유대 천지에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너는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강승한, <불멸의 미소>, 『기독교신보』, 1934.12.5.)

아기는 로마의 무도한 능욕에 철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갈 존재,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밟고 학살하는 로마 병정을 무찌를 존재, 씩씩하게 자라서 민족해방투쟁을 수행한 책무를 지닌 존재이다. 여기에서 아기는 집단적 의미의 예수로 확대된다. 원작에서 이

부분은 알타반이 ‘이 아기가 아기에수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을 토로하는 데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한석원의 작품에서는 전혀 없던 부분이며 방인근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하느냐는 아기어머니 유대부인의 치사에 ‘어서 커서 유대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어라.’라고 의례적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강승한은 기탄없이 아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갈 구원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강승한이 이 작품의 독자/관객에 설파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이어 아타반은 아기어머니 유대부인에게도 ‘아기를 잘 길러 짓밟힘을 받는 욕을 씻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길러’ 달라는 당부를 덧붙인다. 이는 어린이, 소년 관객에게는 아기와 같은 역할을 요구하며 그 부모 관객에게는 건강한 교육과 부양 책임을 환기한다.

이같은 적극성은 4경에서 여인의 구제를 다루는 장면에서도 분명하다. 이 작품에서 여인은 아예 ‘여종’으로 표현된다. 종으로 팔리기 위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이라는 인식은 국권을 잃은 후 태어난 작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부친의 빚이라거나 채무불이행의 과정 따위를 알리는 대사도 모두 생략된다. 아타반은 군사가 여종을 채찍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시험임을 느끼면서 쇠사슬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진주를 꺼내 준다. 그리고 아타반이 쓰러지려 하자, 여종은 아타반을 정성껏 부축하려 노력한다. 원작에서도 소녀가 죽어가는 알타반의 곁을 지키지만 강승한은 어린 여성과 늙은 아타반의 공감과 연대를 무대 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리고 신의 음성은 조용히, 가느다랗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똑똑히 크게 들려온다.

공중의 소리 오호라! 나의 사랑하는 순례의 사도 아타반이여! 너의 줄 거운 영혼 위에 은혜가 풍성할지이다. 너는 반드시 네가 두루 찾는 새 임금을 반드시 만나리로다.

아타반 (고개를 숙이고 듣다가 한 손을 들고 손짓하며) 주여! 그

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때 주의 명령을 받아 뜻대로 쫓
았으며 목이 마르시매 시원히 마실 것을 드렸으며 어느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되시매 후히 대접하였으며 주님이 벗
었으며 옷 입혔으며 병들었던 때와 옷에 갇혔을 때에 가
서 찾아뵈었었나이까?

공중의 소리 (또다시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네 동포, 네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함이니라.

아타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미소를 얼굴에 지으며 숙였던 머리
를 고요히 쳐들고) 아아, 나의 생애는 끝이로다……. 새 임
금…… 메시아……. (말소리가 낮아진다. 웃음은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메시아……를 나는 눈으로 못 보았으며
나의 영혼의 눈에는 뚜렷이 뚜렷이……

(강승한, 「불멸의 미소」, 『기독신보』, 1934.12.19.)

신의 음성, 공중의 소리는 알타반만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
라 똑똑하고 큰소리로 모든 관객에게 울려 퍼지는 확신에 찬 선언이다.
끝내 눈으로 메시아를 볼 수는 없었지만 신의 음성은 그가 세상을 구
할 새 임금을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이 신에게 한 것과 같다
고 확정하고 있다. 이에 아타반 또한 마지막으로 고개를 쳐들고 ‘메시
아를 직접 눈으로 못 보았으나 영혼의 눈에는 뚜렷이 보인다고 고백하
니 쓰러졌어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멸의 미소’를 남길 수 있었던 것
이다. 이어 무대에는 푸르고 찬란한 빛이 아타반 박사의 몸을 비추며
가득 찬다. 이는 상서로운 서기에 다름 아니다. 남아있는 여종은 울며
아타반 박사를 보낸다. 마지막 무대 이미지로 보자면 기성세대의 헌신
으로 자유를 찾은 젊은 세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43)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배경음악으로 〈사의 찬미〉를 적시했다는 점이다. 비극적 정조

이는 명백히 성서적 세계관 내에서 기독교적 구원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향극에서 사회주의 연극에 이르는 민족해방의 투쟁의지를 방불케 한다. 요컨대 일제의 탄압과 통제는 더욱 강고해지고 있었지만 이를 견디며 이겨내려는 극적 시도는 종교적 소재 내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헨리 반 다이크(Henry van Dyke, 1852-1933)의 작품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을 이를 번역한 밀의두(E.H.Miller)와 김동극(金東極) 공술의 『제사박사』와 함께 이를 희곡으로 각색·번안한 한석원의 <아르다반의 여행>(『청년』, 1922.12.), 방인근의 <다른 박사>(『기독신보』, 1929.11.27.-12.4.)와 강승한의 <불멸의 미소>(『기독신보』, 1934.11.21-12.19.)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본격적인 의미의 극작가는 아니지만 1920년대 이래로 희곡과 연극을 서구 작품의 번역과 번안과정, 자연주의적인 표현 형식에서 고양되는 민족해방의 투쟁의지에 접속된 작가들이었다. 한석원의 <아르다반의 여행>은 픽션에 불과한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상상이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수용될 것인가에 주의하고 있으며 방인근의 <다른 박사>는 주인공 아르다반의 선택과정이 좀더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다. 강승한은 불과 16세의 나이로 해당작품을 각색하였으며 교회 및 당대 사회를 향해 원작에 대한 확신에 찬 해석을 기반으로 열정적인 웅변의 장으로 삼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1920년대 초의 번역, 번안의 시대를 거쳐 식민지조선의 자연주의 연극의 성립과정, 민

로 여운을 남기고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각적 메시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의 찬미>의 해석이 오늘날의 감수성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죽해방의 의지를 고취하던 사회주의 연극의 연극사적 흐름과 동일한 맥락에서 전개된다. 아울러 기독교적 의미에서 이는 독립과 해방이란 목표가 지연되는 중에도 당장의 가시적 실패 너머에서 성공을 설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인에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의와 선의 실천의 요구를 확대, 재생산해가는 과정에 같음한다. 1920년 3·1운동의 결과, 좌절한 기독교인 중에는 현실과 타협하거나 타계 지향의 신앙에 경사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처음 소개된 『제사박사』는 표면적으로는 실패지만 진짜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신비주의적인 메시지를 발신한다. 이후 한석원은 이에 반응하며 기독교적 의미에서 이같은 소재를 성서적으로 수용하여 설득력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방인근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개연성을 높여 사실성을 확대하였다. 강승한은 구원 받은 아기와 여종 캐릭터를 당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확장하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협력과 화해를 가시화하였다. 요컨대 이 작품들은 같은 소재가 시간을 거듭하며 더욱 분명한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의 메시지로 성장, 발전해간 과정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독신보』
 강승한, 「불멸의 미소」, 『기독신보』, 1934.11.21-12.19.
 방인근, 「다른 박사」, 『기독신보』, 1929.11.27.-12.4.
 한석원, 「아르다반의 여행」, 『청년』, 1922.12.
 헨리 반 다이크, 밀의두 · 김동국 옮김, 『第四博士』, 조선야소교서회, 1920.
 Van Dyke, Henry,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 New York: HARPER & BROTHERS, 1896.
 _____,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 New York: HARPER & BROTHERS, 1899.

2. 단행본

- 김은주, 『기독교 연극 개론』, 성공문화사, 1991.
 김재석, 『식민지조선 근대극의 형성』, 연극과인간, 2017.
 리보라, 『둥둥둥』, 신학문사, 1990.
 안형주, 『천안 만세운동과 미주민족운동 하』, 성서와교회연구원, 2018.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출판부, 1996,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1990, 73면.
 인영아 극본 · 이강산 작곡, 「제 4의 동방박사」. 모퉁이들, 2004.
 버나드 루이스, 이희수 옮김, 『중동의 역사』, 까치, 1998
 헨리 밴 다이크 박미현 옮김, 『네 번째 동방박사』, 생명의말씀사, 2001.
 _____, 차영지 옮김, 『아르타반』, 내로라출판사, 2022.

3. 논문 및 기타

- 강대훈, 「마태의 탄생기사에 나타난 유대 묵시언어의 기능」, 『신약논단』 제22권 1호, 한국신약학회, 2015.
 강정희,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교육교회』 제263권,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 1998.
 류덕제, 「한국 근대 아동문학과 『아이생활』」, 『근대서지』 제24권, 근대서지학회,

2021.

- 박영정, 「1920년대 초 주일학교 공연 레퍼토리 분석」, 『한국문학과 예술』 제5권,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0.
- _____, 「1970년대 기독교 연극 연구」, 『국제어문』 제21권, 국제어문학회, 2000.
- _____, 「가극 열세 집에 나타난 초기 가극의 한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28권, 한국극예술학회, 2008.
- _____, 「가극 열세 집의 복한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제45권, 한국극예술학회, 2014.
- 방인근, 「이 지우개 없는 인생을」, 『세대』 제109호, 1972.08.
- 송현강, 「이주일의 역사 : 밀러 선교사」, 『기독교신문』, 2010.07.11.
- 신인철, 「동방박사의 예수 경배 서사에 내포된 이방인 수용의 신학적 의도」, 『신약논단』 제18권 1호, 한국신약학회, 2011.
- 안수강, 「한석원 목사의 ‘책임의 자각’ (1922) 분석 및 현재적 함의」,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6권, 한국교회사학회, 2020.
- 장정희, 「재북 아동문학가 강승한의 생애와 동시 세계」,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3권,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3.
- 현우식, 「동방박사 이야기의 교육적 컨텐츠」, 『기독교교육정보』 제31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

Abstract

The other wise man's journey and interpretation of success or failure

Youn Jinheon

In this study, E.H.Miller and Kim Dong-geuk, who translated Henry van Dyke's (1852-1933) work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 Along with Han Seokwon's *Artaban's Journey*(『Cheongyeon』, 1922.12), which was adapted and adapted into a play, Bang Ingeun's *The Other Wise Man*(『Gidogsinbo』, 1929.11.27.-12..) and Kang Seunghan's I looked at *Immortal Smile*(『Gidogsinbo』, 1934.11.21.-12.19.).

Han Seokwon, Bang Ingeun and Kang Seunghan are not all mainstream playwrights in the full sense. However, these were writers who, since the 1920s, were connected to the will to struggle for national liberation that was heighten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Western works and naturalistic forms of expression. Han Seokwon's *Artaban's Journey* pays attention to how the fantasy of the 'Fourth Magi', which is nothing more than fiction, will be accepted as a Christian, and Bang Ingeun's *The Other Wise Man* tries to make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main character Altavan more realistic and persuasive. It is being composed. Kang Seunghan adapted the work at the age of only 16, and is using it as a venue for passionate eloquence based on his confident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work toward the church and contemporary society. This can be said to be persuading success beyond immediate visible failure even while the goals of independence and liberation are being delayed.

Key word : *Artaban's Journey*, Bang Ingeun, *Daleun bagsa*, Han Seokwon, Henry Van Dyke, *Immortal Smile*, Kang Seunghan,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

접 수 일: 2023년 11월 12일

심사기간: 2023년 11월 16일~2023년 11월 26일

게재결정: 2023년 12월 9일